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 성탄, 영광과 평화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다른 목적과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인 누가였고, 그의 주요 독자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소개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온 세상의 구세주로 강조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 탄생의 밤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부드러운 요람이 아닌 거친 강보에 싸인 채, 침대가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동정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기록을 통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이후 천군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습이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만 붙잡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약속한 구절만 강조하며 메시아를 '위대한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구세주께서 섬기는 종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로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사 61:1, 미 5:1~5 등).

따라서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께서 유대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언약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평화'가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증오를 멈추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신비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평화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 작은 믿음이 세운 큰 교회



김성진 담임목사

## 들어가는 말

1993년 12월에 세워진 열린교회가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과 사역을 가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를 양육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세 가지 사명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칭찬을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뿐이었습니다.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며,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라델비아는 현재 튀르키예 알라세히르 지역에 위치했으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종말을 다루지만, 그 앞부분에서 먼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종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이름이 도시 이름을 따른 것은, 각 교회가 지역을 책임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워진 지역을 살리고 책임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도 이 사명에 충실했을 때는 칭찬을, 게을렀을 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 속에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계 3:7)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미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는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닫을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특별히 이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하시

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구원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쇠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의 문을 직접 여시고, 열린 천국의 문을 통해 성도들을 환영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문은 주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문입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지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시며, 양들이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자 문 자체이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에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공동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일상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고백

작은 순종과 믿음이  
큰 시험을 이길 힘이 되고  
성도의 믿음과 순종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 문을 여시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기뻐하셨겠습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큰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교인 수도 많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연약하고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이 빈약하고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나가려는 그 태도를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화려한 업적이나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 3:7-13)

첫 번째는, 이들이 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계 3:10). 이는 시험을 아예 없애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믿음이 장차 닥칠 큰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쌓아가는 작은 순종과 믿음의 실천이 쌓여서 장차 닥칠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계 3:12).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며 영원히 흔들림 없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과 사탄의 공격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의 한 기둥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기둥들이 모여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토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번째 약속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인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계 3:12).

고대사회에서 종의 이마나 손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면, 그 사람이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성도의 삶 위에 이름을 인쳐 주신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속한 자임을 확실히 보여 주시는 깊은 관계의 표시입니다.

즉,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과 경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주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새겨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와의 연합과 소속을 상징하며, 성도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음을 보증하는 표지가 됩니다. 결국 이 약속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남게 됨을 의미합니다.

## 맺음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큰 선교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루를 인내의 말씀으로 살아낸 일상, 주님의 이름 때문에 조금 손해 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낸 그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일상 속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약속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도시교회아웃리치 보고

# 도시로 향하는 아웃리치, 함께 그리고 나란히



권경철 국내전도부(선교복지위원회) 담당  
cyberkkc@gmail.com

### 도시교회 아웃리치 사역을 향한 첫걸음

지난 9월 22일(월) 오후, 수도권 각지에서 일곱 분의 담임 교역자들이 열린교회에 모였습니다. 그중에는 열린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역자나 평신도로 섬기셨던 분들도 있었고, 새롭게 열린교회와 함께 도시 사역에 동참하게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의 목적은 김성진 담임목사님의 부임과 함께 새롭게 준비하게 된 도시교회 아웃리치 사역을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린교회는 과거 '근거리 전도'라는 이름으로 도시 미래자립교회('미자립교회'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대신해 교단 차원에서 '미래자립교회'라는 용어를 권장함)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농어촌 아웃리치에 버금가는 규모로 도시 미래자립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농어촌과 달리 수도권의 교회들은 상가 교회가 많고, 지역마다 환경이 매우 다양하여 확실적인 사역을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일방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협력 사역을 이루기 위해 각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함께 드린 예배와 나는 이야기들

세미나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설교에서 담임목사님은 "각 교회의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맑은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며, 말씀 중심의 사역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교회 상황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약 10분씩 사역 현황과 영적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는 교역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에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자매결연 교구 대표단과 함께 식사하면서 협력 사역의 초안을 협의하는 순서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목사님들은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필요들을 교구에 알리고, 교구는 그 제안을 가지고 가능한 사역들을 국내전도부와 함께 구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 도시로 넓어지는 아웃리치의 지경

이 토대 위에서 열린교회는 이제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

시로 아웃리치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5,132만 명 중 약 92%인 4,727만 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그중 2,609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도시화의 시대 속에서, 도시교회 아웃리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사경회를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열린교회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협력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님이 열린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나눔으로써, 협력 교회들과 '함께 그리고 나란히' 부흥하고 발전해 나가며 수도권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이 아웃리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한 협력교회들에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겸손과 온유로 다가가 서로 배우며 섬기는 사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선명한 복음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나아가 협력하는 교회들과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도시 아웃리치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교사수련회 후기

# 세대를 잇는 다리, 그 부르심 앞에서



정수연 유치부 교사  
tresor1026@naver.com

저는 열린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로 섬김을 시작한 지 12년 차가 된 정수연 집사입니다. 30대 초반인 2008년에 열린교회에 등록했고, 10대 사춘기, 20대 청년기, 30대 육아에 허기진 영혼의 갈급함이 주일 말씀과 교회 지체들의 섬김으로 서서히 채워졌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러 성장반 시절에 나눔을 유심히 들으셨던 교구 전도사님의 권유로 2014년 1월 첫째 아이가 7살, 둘째가 4살 되던 해에 유치부에서 첫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으나 긴 육아로 인한 섬김의 공백기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일상보다 더 쫓기는 마음과 영적 방해로 제 마음은 찢기고 나뉘었습니다. 미처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아이들의 목소리로 고백되는 찬양 속에 눈물이 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공과를 나누는 시간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이들을 위한 건지 저 자신을 위한 건지 모를 정도로 제 마음에 담담하고 간결한 신앙고백이 되어 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2014년 3월 무렵, 처음 교사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당시 신입 교사들에게 신입 교사 명찰이 주어졌습니다. 어느덧 1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당시 10년 이상 섬기는 교사에게 '골드 명찰'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2025년 11월에 10년 섬김 교사 근속 패로 받게 되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되는 교사교육은 교회학

교 교사인 제게 큰 위로와 도전, 성장의 동기가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섬김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의 강사님들이 초청되어 말씀과 교육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주셨고, 교회학교 교역자님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교사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교사수련회에서는, 교사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특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의 원리와 삶의 원리를 진정성 있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자리가 바로 교회학교 교사라는 말씀이 사명의 무게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1년 차 교사에서 20년 이상의 섬김을 이어온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사의 그림자를 보며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삶의 모습과 섬김의 자리는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주

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이쁨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무릎의 시간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동이었습니다.

영아부에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청소년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이 소중하고 귀한 보배임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기도하며 응원하는 교사가 열린교회에 있음이 축복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교사의 영혼을 목양하기 위해 애쓰시는 담당 교역자가 계시고, 또 친히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로, 입술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손과 발에 힘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가족		
▶▶ 장년		▶▶ 청년
신대호(88)	김연경(92)	한수아(03)
전지영(87)	김현성(91)	최승준(95)
백종운(88)	한차희(96)	김동혁(94)
조혜령(84)	백승연(61)	김병연(93)
김지훈(84)	선익철(60)	강수민(89)
최현호(91)	최명희(61)	
장지연(76)	우채연(89)	

목요직장인예배 스케치

# “목요일에 만나요” - 일터 한가운데서 피어난 교회



이소영 장년3교구  
jaharang77@naver.com

 “목요일에 뭐 해요? 우리 만날까?” 이전 구역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하는 말, 목요직장인예배에 같이 섬기면 어떻겠냐고. 사실 나도 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집사님의 “앞으로 목요일에 만나요”라는 말이 참으로 정겨웠다. 그 말이 봄처럼 스며들어 나는 그러겠노라 대답했고, 곧 목요직장인예배 식사섬김팀으로 합류했다.

몇 번의 리허설을 마치고 4월의 봄, 점심시간이면 교회 주변으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을 위해 마침내 목요직장인예배가 시작되었다. 첫 예배 전부터 교회에는 큰 현수막이 붙었고, 화요일전도와 수요일커피전도를 통해 곧 시작될 직장인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며 근처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알렸다.

몇몇 이들은 반가워했고, 몇몇 이들은 무심했으며, 몇몇 이들은 손에 든 전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맛있게 점심을 먹는 점심시간은 직장인들에게 퇴근 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과연 그 시간에 동료들과의 시간이나 잠시 혼자만의 여유를 뒤로 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속으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직장인예배를 통해 일터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일터 근처에 기도처가 늘 열려 있음이 위로가 되기를,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하는 일상적인 일이 그 자체로 예배가 되어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일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럽고 동글게 변하기를.

직장인 예배는 11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한다. 섬김이들은 이전부터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한다. 안내팀은 참석자를 환영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찬양팀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돕는다. 식사섬김팀은 따뜻한 도시락, 물, 간단한 다과와 과일을 세밀하게 준비한다. 메뉴를 보고 기대와 흥분이 오가는 마음은 마치 매일 “오늘 반찬 뭐야?” 하고 묻는 아이의 마음과 같다.

11시, 전체 기도를 위해 예배실에 모일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교회로 올 직장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열린교회 주변 사무실에 있는 이웃들까지 마음에 담는다. 기도는 예배 준비의 가장 큰 힘이었다. 청년 시절, 순원들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던 순장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무엇이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음을 다시 느낀다. 장석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대추 한 알도 태풍과 벼락, 햇볕을 머금어야 익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다림과 준비, 기도가 있어야 영혼이 살아난다.



기도를 마치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다. 식사섬김팀은 따뜻하게 받은 도시락의 온기가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신 분들이 한 끼라도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끼도록 플레이팅도 세밀히 한다. 처음엔 그냥 ‘먹으면 먹는 거지’ 하고 간단히 생각했지만, 도시락 하나도 놓는 위치에 따라 생동감이 달라졌다. 햇살이 비치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새가족실에서, 근처의 직장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한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목요일 점심시간에 열린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소식만 듣고 모여든 이들도. 같은 회사의 동료들이 함께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온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직장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그래서 그런 걸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동그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나는 그들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이곳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심지어 8월, 2주간의 직장인예배 방학기간에는 따로 만나 계속 식사를 이어갔다고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그들을 연결하였을까? 잔잔하게 웃으며 “우리는 열린교회 목요직장인 구역이에요”라고 말하는 분들.

아마 이전에는 그저 회사 근처의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들은 이제 근처를 오가며 눈인사를 주고받는다. 일터에서 부대길 때마다 서로를 떠올리며 마음 한편 ‘혼자가 아니야’를 생각하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사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마음의 이름을 무엇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지나치던 얼굴이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가 되도록 열린교회가 그 다리 역할을 해준다면!

목요직장인예배는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짧지만 깊다. 강단의 말씀은 늘 복음의 본질을 전한다. 매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든 직장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생각해 본다.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성과로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도 정체성을 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복음이 주는 강력한 힘이 단지 생존을 위해, 한 달의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태도,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힘을 얻기를.

목요직장인예배는 매주 30여 명의 직장인들이 모이고 있으며 신기하게도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 그중에는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처음 온 분들의 얼굴에 비친 ‘낯선 반가움’이 어린 표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세상의 어느 누가 환대를 마다할 수 있으랴.

“이렇게 반겨주니 고맙네요.” 약간의 긴장이 담긴, 수줍은 반가움. 그런 반반의 표정이 어린 분들에게는 커피 한 잔을 꼭 건네며 말한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라고 새가족실을 나서서 그들의 이야기가 들린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까?”

교회 주변의 많은 건물 속, 일터에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그 일터의 한 중심에 열린교회가 있어 몸과 마음이 쉬어 가는, 정주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이곳에서 흘러 나가는 찬양과 기도가 일터를 덮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를. ✨


## 교회 소식

<p><b>창립기념주일</b> 12월 7일(주일)은 열린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p> <p><b>새가족환영축제</b> 일시: 12월14일(주일) 오후2시 장소: 새가족실(별관 2층) 대상: 9월부터 11월까지 등록하신 성도 자녀들 ※ 참석여부와 동반자녀 인원은 교구 교역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b>주요사역</b></p> <p>1일(월)~3일(수) 하반기 교역자 보고회 6일(토) 신임제직 면담/온세대아침예배 7일(주일) 창립기념주일 장년 1.3.5.7교구 총회 청년부 총회/장년교구 임원 모임 8일(월) 안양교도소 봉사원 모임 14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정기당회 20일(토) 성탄축하행사 21일(주일) 청년부 새내기환영식 정기제직회 21일(주일)~1월18일(주일) 교사대학(4주) 25일(목) 성탄절예배(10시/12시) 26(금)~27(토) 청년부 기도연주회 28일(주일) 중직자 은퇴식/공동의회 31일(수) 송구영신예배/청년부 송년의 밤</p>
---	--

## 추천도서

###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맷 스메서스트 (저) · 정영준 (역)/두란노



팀 켈러 목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복음은 삶을 바꾼다.’ 이 선언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다. 바로 그 변화를 일상 속에서 살아 내려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팀 켈러 (Tim Keller) 목사의 목회적 유산을 집약한 작품으로, 그가 남긴 수천 편의 설교와 수십 권의 저서를 바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8가지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신앙 예세이도, 일반적인 제자도 매뉴얼도 아니다. 저자 맷 스메서스트(Matt Smethurst)는 팀 켈러가 남긴 방대한 설교, 글, 강연, 미공개 자료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모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팀 켈러만의 깊고도 실제적인 응답을 정리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복음의 향기가 묻어 있다. 이 책은 “삶을 바꾸는 복음의 8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삶’이 아니라 ‘사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 낼 수 있는지 안내한다.


... 이 책을 통해 복음을 삶으로 살아 내려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선물 같은 책이 될 것이다. ‘복음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도전을 받기를 기대한다. 팀 켈러의 도전처럼, ‘예수님의 결론 성경을 읽어 보라’, ‘내 안의 우상을 거부해 보라’, ‘도덕주의를 피해 보라’, ‘좋은 친구가 되어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 보라’, ‘정의롭게 살아 보라’,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라’, ‘용감하게 고난을 견디어 보라.’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길 기대한다.(출판사 서평)

가을말씀사경회 후기

# 누림에서 나눔으로, 사경회를 통해 다시 세워진 신앙



남유미 장년4교구  
nymyk@naver.com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지 23년,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로 자리 잡은 시간은 이제 7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이면 열린교회 등록 교인 2년 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제가 만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처음 등록한 교회를 시작으로, 이사로 인해 세종의 작은 감리교회를 거쳐 지금 열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라는 문구가 마음에 깊이 남았고, 누구의 소개도 아닌 스스로의 결심으로 등록 없이 방문했지만 진정한 내 교회라는 소속감은 등록 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처음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첫 단추를 가볍게 끼울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이끌어 주셨던 전도사님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긴 시간 동안, 정작 성경 공부의 시간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깊이 공감한 저는 '열린교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과정 중 사경회, 아웃리치 등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처음엔 그것들을 그저 다른 교회의 부흥회나 전도 행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전해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말씀사경회는 제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주었습니다. 처음엔 '3일 내내 참석은 어렵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첫날 이후부터는 다음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사경회의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

첫째 날, 예배에 대해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본질이 흔들리는 시대에, 존 칼빈의 예배신학을 바탕으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은 지금의 현실과 조금도 멀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 섬김에 대해 배웠습니다. 섬김은 누군가를 돕

는 행위보다 먼저, 내 마음의 자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김이 사명일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됨을 배웠습니다.

셋째 날,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상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목사님의 말씀 "붙어만 있으면 짐, 섬기면 힘"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 간에 적용될 메시지로, 지금도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배를 시간의 낭비로 여기며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인기 있는 설교를 '쇼퍼하듯' 선택합니다. 하지만 사경회를 통해 저는 다시금 예배는 소비가 아니라 헌신이며,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저는 많은 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예배의 말씀을 통해 배웠고, 사경회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움은 바로 예배생활에서의 현금 생활은 빼앗김이 아닌 나눔의 실천이라는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그 누림이 감사할수록, 이제는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삶으로 전하며, '누림에서 나눔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오늘도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

기도학교 후기

# 기도학교, 내 삶에 일어난 변화



고단비 청년부 목양1국  
ko021209@naver.com

 기도에 대해 더 깊은 갈망을 품게 된 시기에 우연치 않게 기도학교 광고를 접하였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이라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다가, 이번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하지 않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포스터로는 접했지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주변에서도 기도학교를 경험한 사람이 없었기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전혀 예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4주라는 기간이 꽤나 짧게 느껴져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주 차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아,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얻어 가겠구나.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매주 토요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학교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장년 집사님들과 함께 조를 이뤄 나눔을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이어지는 과정들을 통해 여전한 나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간 해오던 기도는 정말 얕은 기도라는 것을, 내가 알던 기도는 정말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흐리기만 했던 기도의 형태가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기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듣는 강의뿐 아니라 과제 설교 청취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와 유익을 누렸습니다. 분명 이전에

들었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다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귀찮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과제의 설교였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중보기도를 하긴 했지만 마음을 실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간절함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도학교를 하며 이 설교를 다시 듣기 전까지 제게 중보기도는 그저 어렵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난 후 나 중심적인 기도를 위주로 하던 내가, 그조차도 꾸준히 하지 못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청년부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국 기독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하고자 했던 소망이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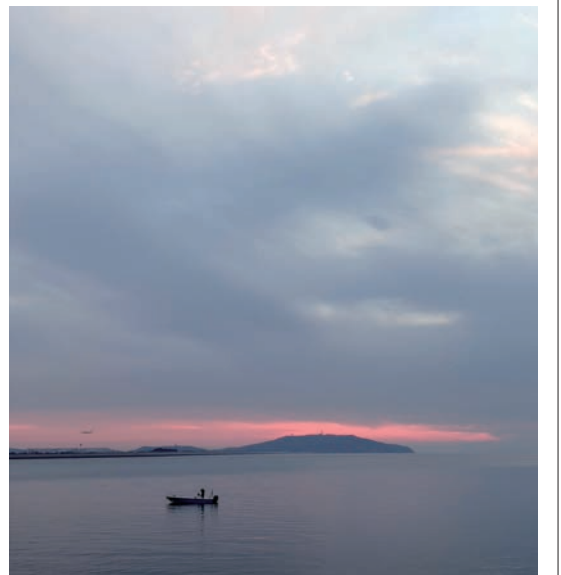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하나의 기억으로 지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기도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매일매일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학교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넓어진 기도의 세

계가, 계속되는 기도의 실천을 통해 더욱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4주라는 시간 동안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 주도 빠짐없이 나아올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감을 마칩니다.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평신도상담학교 후기

# 말씀으로 마음을 배우다



배지설 은혜의동산교회  
smartsnow@naver.com



 2025년 11월 2일, 유독 바람이 세차게 불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한 저녁이었습니다. 평신도상담학교 마지막 4주 차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열린교회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타 교회 교인이기에, 매주 한 시간 남짓 걸려 교육에 참석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각 과정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봄에 있었던 1기 평신도상담학교, 15주에 걸친 기독교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 한여름에 진행한 집단상담에 참여하고 가을에 다시 2기 평신도상담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교회의 문턱을 넘는 일에 주눅거림이 있었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함께한 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버림받은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감정에 놀려 하나님께도, 공동체에도 마음을 여는 것이 늘 쉽지 않았습니다.

1기 평신도상담학교에서 들은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허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에서부터 사실상 저의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었던 기독교 상담사 양성 과정을 끝내고 개설된 “그리스도인의 자기돌봄과 영적 통합” 집단상담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2기 평신도상담학교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시연이었습니다. 강사님은 실제 현장에서 상담적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연습하게 했습니다.

조별 실습과 시연 참관을 통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공동체의 다이내믹 속으로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 상담 시연에서 한 구역장이 구역원 한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후 복잡한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울었고, 강사님의 지도로 ‘공감과 위로’의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히 배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이웃의 관심과 돌봄이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 상담뿐 아니라 구역예배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상담 기술이 서로의 회복 자원으로 활용되어, 리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위로자, 지지자가 될 수 있음도 목격했습니다.

1년에 걸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고, 그로 인한 평안이 가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생명이 주어진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성숙해 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열린교회와 상담소를 통해 경험한 모든 만남과 배움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제 삶을 비추는 은혜의 등불이 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배움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등대학교(2국) 후기

#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배운 사랑의 기준



이다은 청소년부 2국



 이번 2국 등대학교의 주제였던 ‘이성 교제’는 청소년인 저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던 연애와 관계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배우고 싶어 4주 동안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은 제 생각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연애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서적 의존과 건강한 사랑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기울어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수 있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더 성숙하게 하고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의존은 두 사람 모두 지치게 한다는 내용을 배우며, 앞으로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두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의존이 생기는 이유와 그 해결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험, 새로운 학교의 환경이나 가정 문제 등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설명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될 때 오히려 마음이 더 공허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도 되면서,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자리부터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

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데이트와 결혼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 배웠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책임질 수 없는 행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은 현실적이면서도 신앙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었고,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으로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별로 함께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만나 일정을 진행해 보는 활동이었는데, 단순히 노는 재미만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인지를 직접 고민하게 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요소가 건

강한 관계로 이어지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참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조별로 진행한 토론 시간은 깊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신앙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당연히 여기는 행동들이 사랑의 표현인지 아니면 의존의 신호인지 분별해 보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4주 동안의 등대학교 과정을 통해 저는 이성 교제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이며, 서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관계라는 점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앞으로 제 삶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될 텐데, 이번에 배운 기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등대학교를 함께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 또다시 변치 않는 넘치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걸 배울 수 있게 하시며, 실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등대학교는 제 신앙과 관계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아세례 후기

# 세례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선물



한현택 장년7교구  
bigtaek@nate.com



 승은이의 유아세례 준비 과정과 세례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째, 우리 아들 승은이는 입양아다. 입양 절차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태어난 지 9개월 조금 넘는 승은이를 작년 11월 우리 가정으로 맞이했다. 그리고 데려온 지 7개월여 만인 올해 6월, 세상의 법으로도 우리 부부의 자녀가 되었다.

둘째, 내내는 모태신앙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철저한 안티 크리스천의 삶을 살던 끝에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로부터 2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사람으로서 유아세례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막연한 기대감과 동경 같은 것이 있었다. 자녀 없이 지내 왔던 결혼 10년 차 우리 부부의 생활 속에 자녀로 온 우리 아들을 두고, 개인적으로 인생에 신앙이 있었던 삶보다 신앙이 없었던 삶의 기간이 아직도 더 긴 나에게 이 유아세례의 준비 과정과 유아세례식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감격만 하기에는 유아세례 교육과 문답 준비는, 아직도 진리도, 사랑도, 성경적 지식도, 모든 게 부족한 나에게, 얼마나 부모로 서기에 부족한지,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시간이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내게, 이번 과정은 단순히 세례식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성경적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신 매우 귀한 시간이었다. 그런 중에, 이 귀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듯한 일들이 연이어 일

어났다. 직장 생활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자기 극도로 바빠졌고, 마음은 끝없는 시험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가운데 문답을 살펴보고 외우는 과정은 현실의 분주함과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자꾸만 미루고 싶은 일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간이 더욱 어렵고 버거운 과정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내가 북돋아 준 에너지가 없었다면 지금도 이게 가능했을까 싶다. 심지어, 문답 시기에 승은이가 폐렴에 걸리면서 입원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며, 정말 새삼 마귀의 방해가 온몸으로 체감되었다. 문답을 마친 뒤 결국 아이는 입원해야 했지만, 감사하게도 잘 회복되었다. 유아세례식을 감격 속에 무사히 참여하게 하시고 승은이에게 세례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번 시간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세례받는 이는 아이이지만, 성경에 따라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게 하시기 위해 유아세례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교역자분들, 구역원분들, 교회학교 영아부 및 유치부 선생님들로부터 ‘쏟아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 모든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이 글을 빌려 모든 공동체 구성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승은아, 네가 온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 네가 우리의 신앙의 거울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엄마 아빠에게 승은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란 걸 꼭 기억해 줘. 늘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멋진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

곰곰이 생각

## 멀어질수록 뜨거운 불

글·그림: 나동훈  
gongom2@designzip.co.kr

멀어질수록 뜨겁고,  
가까울수록 따뜻한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진노의 불은 뜨겁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사랑의 불은 따뜻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어질수록 뜨거운 불입니다.


- <조지 맥도널드 선집>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상)

등대학교(3국) 후기

#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묻는 진로



 등대학교가 시작하기 전부터도 진로 관련된 조언 혹은 설교는 여러 차례 들었다. 이번 등대학교 주제 역시 ‘입시와 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이번 등대학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5가지 오직(5 Solas)과 도르트 신조를 통해 배웠다. 특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해야 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 도르트 신조를 통해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도 배웠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염려와 불안’, ‘자본주의’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염려와 불안은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지만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시작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프

로테스탄트들이라는 점,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위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세 번째 시간은 ‘자유’에 대해 다뤘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제는 그 자유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현대에 들어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

마지막 시간에는 ‘직업과 소명’에 대해 다뤘다. 하나님의 첫 명령은 섬김(사랑)과 노동인데,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귀천이 없다(도덕적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청지기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딘지를 계속 찾아가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실천해야 한다.

사실 이 내용들은 나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세상은 내가 편한 대로만 하라고 하고, 무슨 직업을 선택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등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에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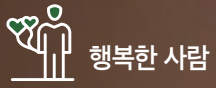
점을 맞춘다. 특히 대학과 전공이 결정되는 시기에는 그런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온다. 또한 자본에 관한 내용도 세상과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하는 프로테스탄트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있다. 세상 친구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들은 목적과 정체성 없이 그저 무엇을 하고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번 등대학교는 그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시간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12년 동안 주어졌던 ‘학생’이라는 소명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계속 누렸다. 이번 등대학교는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의 삶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할 때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는 신자들이다. 청소년부 지체들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

이효준 청소년부 3국





행복한 사람

# 나의 신앙, 우리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

장윤하 장년1교구  
changyunha@naver.com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늘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일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중학생 시절,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충격보다는 그 결정을 내린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모님과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된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려워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겨울 날, 저와 동생은 식사기도마다 꿀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꿀을 박스째 보내 주시고, 그 꿀을 다 먹어가면 또 다른 꿀이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그 겨울에는 손이 노랑게 물들 정도로 꿀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선교 동아리를 통해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모습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배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제 삶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돌이켜 보자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라는 것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의 그릇을 채우고 넘쳐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에서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해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극적인 회심은 없었지만, 대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는 현관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라는 글귀를 붙여 두고, 출근할 때마다 그 다짐을 새기곤 했습니다. 불안하거나 타협해야 할 것만 같은 순간, 혹은 거짓말을 해야 상황이 넘어갈 것 같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택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니, 점점 담대함이 자라났습니다. 제게는 극적인 회심보다 지금의 작은 변화와 다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린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결혼 후에 이사 오면서였습니다. 아내가 이 동네에서 자라며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추천해 주었고,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대학 시절 경험한 공동체와 함께했던 때로 돌아간 듯, 따뜻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심 부모님께서도 바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정이 지역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김성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열린교회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대답을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잠언서 말씀을 통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음의 기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누리는 방법,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지혜와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를 통해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반 과정을 통해 잠시 미뤄두었던 영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7주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떤 성장을 원하시는지,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참여를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꼭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새가족반, 성장반, 구역 모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섬김과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하나님의 몸 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 '부모기도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잘 울지 않는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라는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은 단지 제 자녀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할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어른 된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직접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 또한 충실히 살아간다면, 언젠가 다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이 또렷하게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린교회 공동체에서도 한 명의 성도로서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준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한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광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 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광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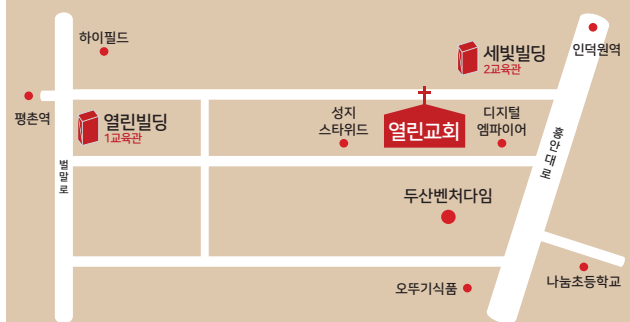
## 파송선교사

- A국:** 1 units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우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직장인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사랑부(정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빌딩 5층 외국인실)	
백향목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테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작은 필요까지 채워 주십니다. 오늘 당신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정에 함께하시길 초대합니다.